



### 4월의 기도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DCEM에도 선교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2.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정치적 안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3.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3월의 새싹처럼 새로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제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오해의 그릇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16)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포도를 따다가 짓이겨 그대로 큰 그릇에 옮기고 그것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옮기고 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찌꺼기는 가라앉고 붉은 빛이 나며 맛있고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훌륭한 포도주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몇 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첫째 단계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먼저 오해의 그릇에 붓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많은 찌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이고 화를 잘 내고 탐욕스러우며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때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제일 먼저 오해의 그릇 속에 넣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해의 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에는 상관하지 않고 표면에 나타난 색깔로 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고 과거의 인상이나 소문으로 그들을 계속 오해합니다. 그들은 당장에 그 오해를 해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오해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포도주를 그릇에 넣는 것은 찌꺼기가 가라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의 그릇 속에 넣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가라앉게 하십니다. 이때에는 오해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에 참고 묵묵히 감옥 속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오해로부터 오는 치욕을 참고 견딜 때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해의 그릇에서 우리의 자아 중심, 의심의 찌꺼기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되돌아보는 DCEM 2005년 해외성회



일본 열도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매해 개최했던 '지저스 페스티벌' 중 지난 2005년 9월 개최한 '2005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을 회고해보고자 한다.

지난 2005년 9월 23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민문화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던 '2005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은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해 조용기 목사를 초청,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라는 말씀을 주제로 DCEM이 주최하고 종교법인 일본폴가스펠교단과 순복음동경교회의 후원 속에 진행되었다.



당 성회는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인근 교회 기독교인들까지 참여해 교파를 초월하여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추분 연휴에 개최된 축제로 예수 이름을 드높인 성회였다. 최대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코로자와시민문화센터는 지저스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성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성회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원근각처에서 찾아든 성도들로 인하여 시작전 3층 발코니까지 모든 좌석이 매워졌으며 뒤늦게 자리한 성도들은 2층 중앙홀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하여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여야 했다.

2005년은 당시 10년째 맞이한 '지저스 페스티벌'로 명실상부한 일본 개신교 집회 중 가장 큰 성회로 해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한 성회였다. 당시 조용기 목사는 "예수를 영접해야만 세상의 속박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로운 인생을 살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해 복음에 귀 기울이기에는 너무도 바쁜 일본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당시 순복음동경교회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었던 김성수 목사는 해마다 개최되는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해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일본의 중심도시인 동경과 오사카를 비롯해 고베, 마쯔도, 마쓰모토, 누마즈, 오야마, 후키아게, 나가노, 이케다, 나고야, 후나바시, 야마토, 후지 등 총 70여 개의 교회가 '지저스 페스티벌'에 동참해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을 벌여 일본 열도를 복음화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 초청 '2005 동경 지저스 페스티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한 성회였으며 일본폴가스펠교단의 교회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꿈꾸고 믿고 창조적 말을 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베헤에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세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아베헤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 (창 13:14-18)

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나이 100세에 아흔 살이 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으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 1. 고난을 당한 인생

그런데 이 고난받은 인생을 더 비참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람과 물질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 2. 꿈꾸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여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헤아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 3. 하나님께 말하고 감사하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가장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서 그 결과로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

이 많아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몸 찢고 피 흘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중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며 병 고침을 받아 건강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중복음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환경이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 4. 인내하며 기도하라

넷째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외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꿈꾸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마태복음10

## 시험을 이기는 길



### 불 같은 시험과 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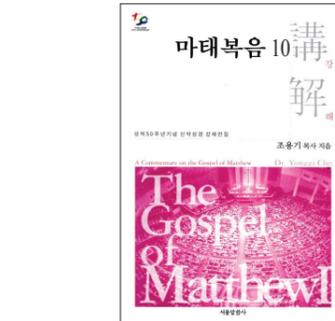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2-4)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는 기다렸다가 즉시 시험하려고 덤벼듭니다. 고깃덩어리를 던지면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개처럼, 성령께서 놓아만주면 불같이 덤벼들어 시험을 합니다. 욥도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십주, 사십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예수께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구복(求福)부터 먼저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여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구복을 먼저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하고 나중할 건 나중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성

경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점일획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성경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때문에 마귀가 꺾꽂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하시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떡부터 먼저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떡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굶어서 죽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은 나중 구하는지를 아시고자 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예수님을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소매를 걷고 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떡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앞선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따르고 떡은 그 뒤에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겠다는 이런 단호한 자세로 나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망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면 그 다음에 욕망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께 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구복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늘 말씀을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